

아파트 숲 옆 노후 주택단지 광주시, 개발 모델 만들어야

주거 질 낮아 빈집 6254채 ... 소규모 개발 제도·방안 마련을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단독 주택의 주거 질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기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저층 및 중층 개발 방안을 고안해 적용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작은 필지를 합쳐 중소 규모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민, 서민의 주거의 질 하락, 범죄 및 재해 가능성, 도시 경관 부정적인 영향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해 광주시와 지역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저층 주거지 소규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광주의 주택 수는 모두 60만6175호로 이 가운데 65.3%인 39만5976호가 아파트, 31.9%인 19만3267호가 단독주택이다. 나머지 2.8%(1만6932호)가 연립·다

세대주택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매년 1만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2000여 세대의 단독주택이 '멸실'되고 있으나 문제는 재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다.

현재 남아 있는 단독주택 중 대부분은 건축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 서민의 주거의 질 하락, 범죄 및 재해 가능성, 도시 경관 부정적인 영향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해 광주시와 지역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저층 주거지 소규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전기 및 상수도 1년 이상 미사용 주택 6254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시비 8억원을 들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적고,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한계가 있다. 시가 지난 2008년부터 11년간 54억원을 들여 600동을 철거하고, 48억원을 들여 22동을 매입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10억원 미만의 예산이 책정된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017년 발표한 광주의 빈집은 시가 추정하는 수치의 5배인 3만3569호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빈집은 시가 추정하고 있는 6254호를 크게 초과할 가능성도 높다. 임성기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저층주거지는 아직까지 광주의 역사는 물론 골목길, 공동체, 소점포 등의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라며 "아파트 단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저층 주거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염주체육관 수영대회 준비 한창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염주체육관 관람석 철거 공사를 마치고 풀장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관람석 1320석 규모의 염주체육관은 아티스틱스위밍 경기 시설로 공정률은 42%진행중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숙의형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전국 첫 도입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정책 시민이 직접 만든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정책을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장이 열렸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일대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았던 '대동정신'을 지방자치에 도입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숙의형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광주시는 20일 "시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며 정책으로 이어가는 시민소통 광장인 온라인 플랫폼을 20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SNS 계정에서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참여형 민주주의로 시민 누구나 제안부터 공감, 토론, 심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다. 제안부터 실행까지의 시민들 공감 수와 토론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한 제도를 비롯해 행정 개선사항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제안을 했을 때 시민 공감 수가 30일 동안 100명이 되면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되면 10일 동안 광주시 관련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한다.

최종적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광주시에 권고해 정책으로 이어진다.

광주시 김웅승 시민소통기획관은 "시

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소통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행정 협치 모델로 정착돼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광주 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구축됐다. 현재 광주시의 실험적 도입에 대해 전국 광역자치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메이드 인 강남' 주원규 작가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강남 ▶2면



KIA '슈퍼 루키' 김기훈
5 볼넷·1 피홈런 '와르르' ▶20면

광주시. 민간공원 14곳 재정투입 계획 확정

2023년까지 2080억 투입

토지매수·공원시설 조성

광주시는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중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10곳을 제외한 15곳 공원에 대한 재정투입 사업계획을 19일 확정했다.

이날 광주시는 "시민사회단체·대학교수·시민회·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지난해 4월 제안한 공원경계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17개 공원(광목)은 공원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원부지가 많아 광주시 재정을 모두 투입할 수 없어 전체 25곳 중 10곳은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개발과 공원조성을 하고, 남은 15곳은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다. 이번에 재정이 투입되는 14곳

공원은 각각 공원면적 재설정과 소요 재정 확정 등 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공원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입 10곳은 월산·발산·학동·방림·신용·양산·황룡강대상·우산·화정·운전이며 부분 매입은 4곳은 신촌·본촌·봉주·영산강대상이고 광목은 공원 지정을 해제한다.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는 그동안 재정 공원으로 추진하는 공원에 대한 현장 실사와 회의를 거쳐 공원별 경계를 분석하고, 공원 효용성이 낮은 지역과 허가된 건축물이 공원경계에 위치해 보상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은 배제하는 등 일부 경계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14개 공원면적은 215만㎡에서 68만2000㎡가 감소한 146만8000㎡로 조정됐다.

광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2080억원을 투입해 토지매수, 공원시설 조성 등을 실시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예산 427억원을 확보해 월산근린공원 등 7개 공원의

사유지 6만1000㎡를 협의 매수했으며, 올해는 12개 공원 14만1000㎡를 추가 매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통해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며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개 공원 중 1단계인 마북·송암·수랑·부산 4개 공원은 지난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사업의 수용 통보했으며, 9월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

2단계인 중앙1·2·일곡·중외·신용(운암)·운암산공원 등 5개 공원은 공공성을 최대한 확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제안자가 없는 송정공원은 재공고를 통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해남**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대행사

해남군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